

펄프종이기술이 만난 제지인

“ESG 경영을 선도하는 무림”

이도균 대표

펄프종이기술은 국내 제지업계에서 ESG 경영과 친환경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무림그룹의 이도균 대표를 만났다. 이도균 대표는 1956년에 창립되어 70주년을 목전에 둔 무림그룹의 수장이다. 무림은 우리에게 친숙한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펄프·제지를 중심으로



단단한 사업영역을 구축해 왔으며, 앞으로도 종이와 펄프의 친환경성을 바로 알리고, 펄프몰드 등의 신제품개발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기반을 둔 미래 펄프·제지산업의 비전을 그려가고 있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이도균 대표의 소신과 열정의 리더십은 작년 말 미국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국내 제지업계 최초로 대상(Platinum)을 수상하면서 더욱 잘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도균 대표는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높이 평가하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남다른 신뢰를 받고 있다.

■ 펄프종이기술: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림’하면 70년 가까이 펄프·제지산업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와 발자취를 남기며 펄프·제지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는 회사라 생각됩니다. ‘무림’이라는 회사 명칭의 의미와 주요 역사적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림의 핵심가치는 혁신과 환경입니다

이도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펄프·제지업계를 대표하는 학술지인 펄프종이기술에서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림(茂林)’이라는 사명에는 ‘무성하고 울창한 숲’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창업 이념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울창한 숲을 가꾸듯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무림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핵심 원칙이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9년, 대부분의 종이를 수입에 의존하던 시절, 창업 주이던 선대 이무일 회장님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첫 백상지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사업은 지속 확장을 거듭하며 1987년에는 국내 제지사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현지 법인 ‘무림USA’를 설립했지요. 당시 미국 시장은 글로벌 제지 브랜드들이 선점하고 있었고, 한국 종이에 대한 인지도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정받는다면 다른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수월해질 것이라 판단은 적중했고, 현재 무림은 전 세계 105개국에 종이를 수출하는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국내 제지산업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자 당사만의 자랑이기도 한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 2011년 준공한 일관화 공장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차원이 다른 생산 시스템에 있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무림P&P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은 천연 생(生)펄프를 직접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공장입니다. 일반적인 제지공장은

외부에서 건조 펠프를 들여와 다시 물에 푸는 과정을 거치지만, 일관화 공장은 펠프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슬러리 펠프를 그대로 사용해 원가도 절감하고, 품질이 우수한 종이를 만드는 일관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제지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무림P&P 역시 일관화 시스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림은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펠프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원료인 '흑액'을 스텀과 전력으로 전환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며, 그 결과 연간 약 80만 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자 다양한 부문을 살필 생각입니다.

■ **펠프종이기술:** 이 대표님께서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시기 이전에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요?
또 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일관화 공장의 첫 시작부터,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도균: 입사 후 영업 부서에서부터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고객과 제품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의 시각에서 우리 제품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며 시장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구매, 전략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경영 전반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그때의 경험들은 지금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을 꼽자면, 무림P&P 펠프-제지 일관화 공장의 첫 시작부터 만들어갔던 시간들입니다.

당시 건설본부 일원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텅 빈 부지에서 첫 삽을 뜨고, 골조와 설비가 하나씩 들어서며 점차 공장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함께 했습니다.

당시 국내 유일의 펠프-제지 일관화 공장을 우리 무림의 손으로 만들어 냈다는 기쁨과 성취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제조업은 제품 생산이 핵심이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경험이 있을 때 비즈니스도 더욱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오늘날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 **펠프종이기술:** '무림'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ESG 경영에 진심인 회사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ESG 경영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 대표님의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림의 ESG 경영비전과 성과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림은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도균: 과찬의 말씀입니다. (웃음). ESG 경영은 이제 무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시대적 숙명이자,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당장의 생존과 이익 추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환경 보호 등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무림은 단순한 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 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다양한 ESG 활동을 폭넓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엔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제지업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으며,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에서도 상·하반기 모두 AA등급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무림의 주요 ESG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미국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국내 제지업계 최초로 ESG 리포트 부문 '대상(Platinum)'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 300여 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 및 기관에서 출품한 1,500개 이상의 작품 중 당사의 보고서 구성과 ESG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는 점은 한국 기업의 모범적인 ESG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림은 실효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 **펄프종이기술:** 지난 한 해 무림은 수많은 수상 경력으로 업계의 부러움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무림이 수상한 대표적인 수상 경력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환경을 생각했습니다

이도균: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은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좋은 평가를 받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아시아 최대 규모 어워즈인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4년 연속 제지부문 1위를 수상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제품을 선정하는 시상식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게 됐다는 건 오랜 시간 대한민국 대표 종이 기업으로 자리하며 소비자들의 확고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우수법인' 수상 역시 빼놓을 수 없겠네요. 국내 52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당사는 국내 제지사 최초로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임직원들이 원칙과 투명 경영을 묵묵히 실천해 온 노력의 결과이며, 국내 제지업계에 투명 경영

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무림이 선진 경영 기업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무림의 친환경 제품들이 다수의 수상을 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재차 인정받는 해였습니다. 탈(脫) 플라스틱 시대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당시의 친환경 펠프, 종이 제품들은 시장 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3년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종이 완충재, 생분해 종이컵, 천연 펠프로 만든 종이 몰티슈까지… 탄소 저감과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을 선두로 저희는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 환경을 모두 고려한 제품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펄프종이기술:** 이런 수상의 결과는 그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데요. 함께 참여했던 임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의 소회와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친환경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

이도균: 진심으로 함께 협업해 최선을 다했기에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 를 빌려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

니다. 임직원들이 회사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주었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점은, 이렇게 임직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하나로 모여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래 국내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무림의 제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저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 중 신세계 와인포장재나 한국콜마 종이튜브, 교촌치킨 치킨박스 등 혁신적인 친환경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소비자의 일상에 밀접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보입니다. 이 같은 협업을 통해 무림의 제품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동시에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림은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펄프종이기술:** 디지털이 대중화되면서 펄프·제지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또 한쪽에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무림에서 개발한 펄프몰드 '무해(moohae)'는 이름도 재미있을 뿐 아니라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품의 특장점과 함께 제품에 거는 기대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해’는 환경과 건강을 위한, 무림의 새로운 ‘해답’입니다

이도균: 인공지능 등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직접 오감을 통해 세상과 교감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쓰고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대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서 우리나라를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이는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공감각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최적의 매개체로, 무한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펄프몰드는 종이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소재로 활용도가 높으며, 그 확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림의 펄프몰드 ‘무해(moohae)’는 바로 이러한 의지를 담아 탄생한 첫 제품입니다. 100% 천연 생펄프로 만들어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땅속에서 자연 분해되어 환경친화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식품안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탁월한 내구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무해’는,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무림이 찾은 해답’이라는 의미처럼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해, 해외에서는 이미 식품용기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디지털 가전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 산업 군에서 ESG 경영 기조가 확산되면서 펄프몰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해’를 비롯한 친환경 종이, 펄프 제품들이 우리의 생활 속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펄프종이기술: 탈 플라스틱 시대를 맞아 종이와 관련 제품이 플라스틱 대체제로 그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플라스틱이 사용돼 왔기에 하루 아침에 바뀌긴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탈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과 무림에서는 이런 난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이의 친환경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앞장섭니다

이도균: ‘탈 플라스틱’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플라스틱이 필요한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영역 중 종이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에

펄프와 종이만이 가진 가치를 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업계의 과제는 단순 플라스틱 대체재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종이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진정으로 쓰임 있는 제품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친환경 종이 포장재나 펄프몰드 외에도 지난해 울산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셀룰로오스 나노파이버 (CNF) 생산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학계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셀룰로오스 나노파이버는 자동차, 화장품, 페인트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 가능한 차세대 고기능성 신소재입니다. 국내에서는 펄프공장을 당사만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 또한 당사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업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펄프와 종이가 가진 환경적 가치에 진실로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그 이점을 체감할 때 자연스럽게 ‘왜 필요 한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을 것이며, 효과적인 탈 플라스틱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그간 대형 종이 제조사의 고객 위주 마케팅에서 벗어나 일반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친환경성과 활용가치를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공하는 ‘페이퍼 어드벤처’와 ‘무림페이퍼 종이비행기대회’가 대표적인데요, 대중들이 오랜 기간 우리 일상에 내재돼왔던 종이의 가치를 느끼고 올바른 인식과 함께 친환경 종이 제품 사용에 주저함이 없을 때까지 이 같은 활동들은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 **펄프종이기술:** 일반 대중 가운데는 '종이는 나무를 베서 만드니 산림을 훼손하는 산업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적지는 않다는 사실이 펄프·제지산업이 받고 있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국내 유일의 화학펄프 생산업체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지의 원료목재는 나무농장에서 키워서 이용합니다

이도균: 아시다시피 제지산업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오해입니다. 종이는 재활용 비율이 85% 이상에 달하는 친환경 제품이며, 자연에 버려져도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 생산을 위해 목재가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연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것이라는 건 이미 업계를 포함,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대중들에게 고루 잘 전파되지 않아 일부 자료에서 여전히 잘못 묘사되는 경우를 접하게 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무림P&P 인제림' 사례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제지사들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별도의 '인공 조림지'에서 생산된 목재만을 사용합니다. '나무 농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고 가꾸다가, 종이 생산을 위해 벌목한 자리에는 또 새로운 나무를 심어 숲을 가립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글로벌 제지사들이 이같은 자체 조림지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들어 탄소 저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저희 역시 강원도 인제군에 국내 최대 규모(2,000ha, 약 600만 평)의 자작나무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제림은 철저히 관리되며,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인정받아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로부터 '산림경영인증(FSC FM)'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제지산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숲을 조성하고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앞으로도 무림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천하며, 친환경적인 제지 생산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림P&P의 인제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FSC-FM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 **펄프종이기술:**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산림도 이제는 간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와 이용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목재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많다는 업계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무림의 펄프용 목재침 조달현황 및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한 산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도균: 당사가 사용하는 국내산 목재침은 60%에 달합니다. 단일 기업으로서는 국내 목재침 최대 수요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제정된 '친환경 벌채법' 이후, 원활한 목재 순환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목재침 조달이 녹록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산림 보호라는 법의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속 가능한 목재 산업 발전 및 국내 목재업체들의 영속성 또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세부 제도들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 학계, 산업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무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고 하지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오래된 고령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영급에 도달한 나무는 벌채하고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탄소 흡수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환경에 이롭습니다. 또한, 별채된 목재는 건축,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재활용되며 경제적 가치도 창출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리인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 산림이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과 산업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 **펄프종이기술:** 최근 펄프공정의 에너지회수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설비의 역할과 현 진행상황 및 향후 기대효과가 궁금합니다.

국내 유일 '펄프 기업'에서 '바이오 에너지 기업'으로

이도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림은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을 설립한 이후, 펄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천연 원료 '흑액'을 연소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회수 보일러는 이 흑액을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핵심 설비로, ESG 경영 강화와 생산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림은 지난해 약 2,800억 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신규 친환경 회수 보일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공

사는 이미 착공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친환경 보일러가 완공되면 기존 대비 약 2배 증가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져,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며 바이오 에너지 신사업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최근 국내 굴지의 에너지 기업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 친환경 스텁 공급 사업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친환경 에너지 상업화가 성공한다면, 이는 업계 최초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 '펄프 기업'에서 '바이오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미래 제지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펄프종이기술:** 무림은 한국펄프종이공학회에서 개최하는 기술 교육에 가장 많은 참석자를 보내주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림의 안전과 기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뒤엔 이에 대한 대표님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지요

이도균: 어떤 현장이든 항상 사고의 위험은 있고, 직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안전 관리와 교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대 회장님의 '모든 무림인은 서로서로 가족처럼 아끼는 인화(人和)를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창업이념은 항상 큰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경영센터'를 신설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조직별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핵심 요소로 강조하며 전사적인 차원



에서 대웅 역량을 강화할 때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업무의 프로세스화입니다. 어떠한 업무든 각 단계별로 명확히 분류해서 검토하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매뉴얼화하는 과정을 통해 체계화한다면 적어도 '실수'에서 오는 사고(人災)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 전문적인 의견을 넓힐 수 있게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외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하고 건강해야 좋은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펄프종이기술:** 펄프종이기술 독자 가운데는 펄프·제지산업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무림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무엇이며, 인재 양성을 위해 펼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이 단순한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가진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한한 가치를 이해하고, 펄프·제지 산업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가진 인재라면 무림과 함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림은 오랜 기간 동안 미래 펄프·제지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P&P화학공학' 전공 과정입니다. 지난 2018년, 펄프·제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신설한 해당 학과는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울산공장에서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당사 입사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결국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의 기술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성장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림은 젊은 인재 발굴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학회에서도 더욱 힘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펄프종이기술:**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말씀과 무림의 행보는 펄프·제지산업에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무림이 더욱 풍성한 숲으로 성장하여 후진들에게 큰 꿈과 힘이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 **대답:**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

경상대와 펄프종이공학회를 통한 인재양성과 기술교육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균: 혹시 종이나 펄프 없이 생활하는 모습,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상상이 안되죠. (웃음)

정말 불편할 겁니다. 그만큼 펄프와 종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나노셀룰로오스 같은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활용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펄프와 종이 산